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이번주 독서: 이제니수 로사, 이은아 아그네스

다음주 독서: 김제린 스텔라, 김지원 카린

이번주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다음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번주 미사해설: 김태진 하상바오로, 우명희 카타리나

다음주 미사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김보미 로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성당 사무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 오늘의 묵상

하늘 나라 잔치에 부름을 받는 것은 죽음 이후에나 이루어질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입니다. 우리 삶 깊은 곳에 이미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깊은 곳에서 하늘 나라 기쁨의 잔치에 순간순간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 하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면 갖추어야 할 예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를 갖추어 그에 맞는 예복을 차려입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혼례식에 초대받으면 밝고 화사한 옷을 입고 신랑 신부를 만나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반대로 장례식에 가면 슬픔을 표현하는 옷을 입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이처럼 하늘 나라에도 그에 맞는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은 사랑, 정의, 평화, 겸손, 온유, 친절, 인내 등 아름다운 내면의 옷입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 잔치를 위해 이런 예복을 입어야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의로워야 할 때는 정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인내하여야 할 때는 인내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친절과 온유가 필요할 때는 친절과 온유의 옷을 입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는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1 코린 9,22 참조). 하늘 나라의 기쁨은 이런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헌금: \$ 257

합 계: \$ 257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28 주일]

2011 년 10 월 8 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25, 6-10 ㄴ

<제 2 독서> 필리피서, 4, 12-14, 19-20

화답송

-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마태복음, 22, 1-14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오늘의 성가] 시작: 51 봉헌: 217 성체: 151 파견: 463



생활하는 신학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의미

이브 콩가르는 칼라너와 함께 공의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로 1904 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1925 년 도미니코회 수사로 서원하고 5 년후 신부로 서품되었다. 1950 년대 초반, 교회쇄신과 평신도를 다룬 두 권의 책이 큰 반향을 일으켜 교황청으로부터 활동을 제한받기도 하였으나, 교황 요한 23 세에 의해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위원으로 불리어 문헌 작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요한바오로 2 세에 의해 1994 년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콩가르의 ‘평신도신학’에 기대어 “우리가 교회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교, 사제, 수도자는 물론이고 평신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왔는데 정말 그런가? 나는, 우리는, 교회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누구라 생각하고 있을까?

1950 년대 초반 출간한 그의 대표작 <교회쇄신의 진위 True and False Reform in the Church>는 그로부터 10 년후 공의회가 개최되는데 큰 영감을 준다. 이와 더불어 발간한 <교회안의 평신도 Lay People in the Church>는 평신도에 대한 인식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만큼 이슈가 됐다. 이 책이 이슈가 됐던 것은 성직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공의회 이전의 상황에서 평신도들도 사제와 마찬가지로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갖는다는 선언 때문이다. 나아가 평신도의 사제직은 미니사제직이나, 직무사제직의 부산물로 간주되는 사제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평신도를 서술할 때 사제를 중심에 놓고 정의하는게 아니라 사제를 평신도와와의 관계에서 정의하려 했다는 관점의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평신도를 사목의 동원 대상 정도로 여기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평신도가 사목하는데 사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혁명 (1789)이전 교회 성직자 안에서도 신분상의 차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가령 당시 프랑스교회의 주교 135 명 중에서 평민 출신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가 귀족 출신이었다는 점, 하급 성직자인 사제 그룹 7 만명 중 대다수가 도시 평민 출신인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 중세 피라미드 조직에서 일탈하는 노동자와 서민들과 함께 하려던 하위 사제 그룹은, 무너지는 봉건 귀족 사회와의 유대를 청산하지 못하는 주교들에 의해 좌절되거나 교회 밖으로 추방당하였다. ‘교회는 바로 주교’라는 도식이 지배하던 시대의 한 장면이다.

근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도 역사를 무시하고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긴 했지만 대체로는 일련의 역사 현상을 교회에 대한 세속의 도전이라 생각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20 세기 전후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교리’, ‘가톨릭혁신’, ‘JOC’, ‘노동 사제’ 운동 등은 교회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기보다는 확산되는 공산주의 운동에 수세적으로 응대한 결과라고 보는 평가가 더 적절해 보인다. 수세적 대응의 결과라 해도 성령의 숨결은 이 시기 교회의 활발한 사회 참여에 큰 힘이 되었던 모양이다. 교황청 통계연감에 따르면 통계를 집계한 1970 대 이래 유럽의 사제수는 북미, 오세아니아와 함께 지속적인 하향세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사제를 포함한 ‘성직자가 바로 교회’라는 도식이 지배하던 시기의 상황이다. 봉건시대에 비해 ‘우리’의 범주는 주교에서 사제로 넓어졌지만 사제수로 대표되는 교세의 감소는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우리’의 범주에 평신도를 포함하여 교회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자는 것이 콩가르 평신도 신학의 핵심인 것이다.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바람은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 사목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불었고, 교세 위기인 유럽과 북미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동등한 파트너십의 관계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교구청 고위직뿐 아니라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평신도의 수가 절반을 넘어서었다.

(앞면에 이어서)

† 공지사항

- 내년 달력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미사 후에 보시고 두 가지 종류 중 하나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을 유럽에서 말하는 것과 한국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다.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교세의 감소, 특히 사제수가 줄지 않는 한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은 립서비스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1961 년 271 명이던 한국인 사제수는 1971 년에 563 명, 1981 년 944 명, 1991 년 1,645 명, 2001 년 3,010 명, 지난해는 4,314 명으로 50 년간 16 배가 늘었다. 지원자 미달로 신학교 정원이 차츰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제수 감소는 한동안은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일 것이다.

사제수의 증가와 달리 평신도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냉담자의 증가, 세례자수와 주일미사 참여자수의 감소 등 사목지표가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05 년 인구센서스에서도 확인했듯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고, 각종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도 부동의 1 위를 차지하는 등 위기의 징후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교회가 더 복음적이어서가 아니라 현 정권 들어 더욱 악화된 반개신교 정서와 불의한 현실에 맞서 예언자적 모습을 보여주는 소수의 사제와 활동가 그룹에 기댄 반사이익 탓이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저 멀리 200 주년 사목회의에서 부터 교구별 시노드, 그리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 운동으로 시작했던 소공동체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교회다’라는 관점에서 시도한 여러 크고 작은 실험들을 진행한 바 있다. 설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실험들에서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징후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유럽의 예에서 보듯이 사제수가 줄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과연 이 문제는 사제, 평신도라는 특정 교회 직무의 권력 관계 재편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일일까? 단언컨대 줄어드는 사제수에 기대어 늘어나는 평신도의 참여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우리의 구원은 시스템을 바꾸는 채신이나 변혁을 통해 오지 않는다는 걸 요즘 더 절실하게 느낀다.

4 대강 반대, 화망버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등에 참여하는 사제나 활동가들이 본당 신자들보다 한국사회의 진보진영에게서 더 환영 받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현상을 보수화된 신자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한국에서의 평신도운동은 계몽운동으로 진행될게 분명하다. 이른바 현실참여에 민감한 진보적 신앙인 그룹을 보는 많은 신자들의 시선에는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 반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이런 전제에서 진행하는 계몽운동이 한 쪽은 복음적이고 다른 한 쪽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분법의 구도에 갇힌 탓에 제대로 소통도 안되고, 공감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나아가 정의의 잣대를 사회를 향해서만 휘두르는 본당 사제(활동가)를 보면서 신자들이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자들을 향해 ‘그것 역시 신앙이 아니야’라고 응답할 때 현실 참여의 신앙은 그들만의 운동에 머물 뿐 신앙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교회내 진보그룹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는 욕망에 근거하기보다 사회는 혹은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사회구원에 더 강조점을 두어왔다. 후자를 비전이라고 칭한다면 욕망과 비전의 통합이 진보그룹이 신자들과 소통하는데 키워드가 아닐까? 경동현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원)